Eugene's FICC Upda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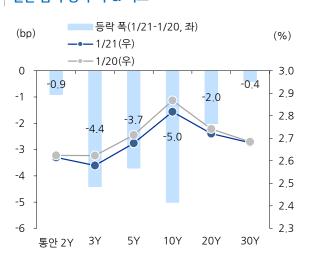




Fixed Income 김지나 02)368-6149 i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 02)368-6176 i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 02)368-6177 dbwogur170@ eugenefn.com

Fixed Income (단위: %,bp,							
		1/21일	1D	1W	YTD		
국내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579%	-4.4	-6.7	-1.7		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818%	-5.0	-2.3	-3.7		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23.9	24.5	19.5	25.9		
	3년 국채 선물(KTB)	106.93	15.0	30.0	28.0		
	10년 국채선물(LKTB)	118.52	67.0	129.0	160.0		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275%	-1.0	-10.7	3.6		
	미국채 10년물	4.577%	-5.1	-20.4	-0.8		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30.2	34.3	39.9	34.6		
	독일국채 10년물	2.508%	-1.7	-11.9	14.4		
	호주국채 10년물	4.407%	-7.3	-20.8	3.9		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
- 트럼프 취임 연설에서 구체적 관세 계획 언급 부재. 다
 만 무역시스템 개편을 즉시 시작하고, 관세 수입을 담
 당할 대외수입청 설립할 의사를 강조
- 우려 대비 강하지 않은 발언 수위로 안도감 확산되며 국고채 강세. 외국인, 국채선물 3 · 10년물 모두 대규모 순매수하며 금리 하락 견인
- 트럼프, 취임 연설 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% 관세 부과 가능성 거론. 이에 잠시 강세 폭이 축소되기도 하였으나, 기존 입장 반복인만큼 영향 력은 제한됨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
- 전일 마틴루터킹데이로 휴장한만큼 아시아장보다 늦게 트럼프 취임식 소화
- 트럼프, 아직 보편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덜 됐음을 밝힘. 중국에 대한 구체적 조치는 언급조차 없었음. 이외 관세 부여 속도 조절 가능성 시사
-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하며 석유시추 늘릴 것을 재확인 한 영향에 국제유가는 2% 이상 급락
- 금일 한국 4분기 GDP 발표 예정



FX & Commodity (단위: %, s						
		1/21일	1D	1W	YTD	
한율	원/달러	1,439.50	-0,8%	-1.6%	-2.2%	
	달러지수	108.03	0.0%	-1.1%	-0.4%	
	달러/유로	1.042	0.0%	1.1%	0.6%	
	위안/달러(역외)	7.27	0.0%	-1.1%	0.9%	
	엔/달러	155.53	-0.1%	-1.6%	-1.0%	
	달러/파운드	1.234	0.1%	1.1%	-1.4%	
	헤알/달러	6.02	-0.1%	-0.5%	-2.6%	
상품	WTI 근월물(\$)	75.89	-2.6%	-3.7%	5.8%	
	금 현물(\$)	2,742.60	1.2%	2.5%	4.5%	
	구리 3개월물(\$)	9,291.00	0.2%	1.5%	6.0%	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-12.20원 급락한 1,439.50원에 마감.
-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관세 부과를 시행하지 않자 달러는 급락했고 달러-원도 역 외에서 급락.
- 장초반 1,430원대 초반까지 낙폭 키웠으나 트 럼프가 2월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 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자 낙폭 축소.
- 국내증시도 장초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지 만 환율은 설 이전 네고 등의 영향 속에 1,440원 부근에서 등락.

원달러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트럼프 관세 우려 완화에 이틀 째 하락.
-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다양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공약했던 고율 관세 부과는 없었음.
 멕시코, 캐나다에 관세부과를 고려하고 있다고했지만 중국이 대미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의사를 표하면서 갈등 우려는 완화.
- 한편 엔화는 아시아 장 이후 별다른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지만, 전일 재무상이 엔화 약세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하고 BOJ에 이를 전달 했다 밝힘.